



## 일정규모 이상 등록 또는 허가제

축산법중 개정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에 안병규의원외 81명이 발의하여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심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였지만 축산인들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몇 가지 있어 기술하고자 한다.

축산법개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축산인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이번에는 웬일인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졌다. 생산자단체들도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신문보도 이상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었다.

본지에서는 2월호에 이번 축산법개정의 근본취지가 대규모 상업자본의 침투를 막는데 두어야 된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양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음도 지적되었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축산법 개정목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자를 규모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제로 하여 생산조절, 출하조절 등을 농수산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물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안정을 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지시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대폭 강화하여 정부가 축산물 수급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다. 물론 대상규모나 축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겠으나 이제까지의 시장기능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고 수급이 조절되어 오던 것이 이제는 정부의 수급계획에 의하여 수급이 조절되어지게 되었다.

양계산업의 경우 현행법에도 부화업자나 종계업자에 생산조절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축산법 제15조) 그간 한번도 시행되어 본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법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 시행되고 닭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은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시행령이 공포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등 기왕에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수요가 거의 안정되었음에도 수급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우리와 같이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계절별로 수요진폭이 큰데 그것도 작도별로 쿼터를 배정해서 수급을 조절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닭은 사육기간이 짧고 소자본으로 쉽게 사육할 수 있을 뿐더러 많은 사람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수요에 맞추어 생산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 불안하기 조차 하다.

도제유통에서도 행정력으로 지도감독이 불가능하였음이 나타났는데, 과연 전국의 축산농가

를 현 시군의 축산계직원 몇 명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 쿼터의 이권화, 탈법, 부정방법의 연구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은 불문가지이며, 가격이 오를 경우 수입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서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양계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하여 보았으면 한다. 규모에 있어서도 금년에 우리는 국민 1인당 GNP 2천불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88년에는 3천불에 육박하게 되어 5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0,000원의 소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수를 사육해야 하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벌칙의 강화만으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하고 축산이란 이름으로 모든 축종이 일괄 처리되어 저서는 안 될 것이다.



## 콜레스테롤 파문

지난 3월 26일자 시사주간지 「TIME」은 표지와 본문 8페이지에 (총 72페이지) 콜레스테롤 (cholesterol) 문제를 다루었다.

세포의 외피막을 구성하며, 소화작용을 하는 담즙, 신경을 격리시키는 지방층, 비타민 D 합성원료 아스트로젠이나 안드로젠 같은 성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인체에 있어서는 안될 콜레스테롤이 하루아침에 사신(死神)의 주역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심장질환 발생을 보이고 있으며, '83년 경우에 100만명이상의 미국인이 심장발작으로 고생을 하였고 이중 절반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40~50대 남자들이라 더욱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한다.

미국립 심장-폐-혈액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빚어지는 경제적 손실은 치료비 임금과 생산성손실 등을 합쳐 600억달러로 추산되니 미국민들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 만도 하다.

국내 매스컴들도 처음에는 마치 우리의 식생활이 미국의 수준과 같은 것처럼 타임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여 제목도 '치명적인 콜레스테롤' '계란과 버터를 삼가라'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더욱 심층보도를 위해 국내 영양학자, 개업의사, 의대교수 등 광범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의 형편으로는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서 걱정하기보다는 더욱 많이 먹어 팔력에 찬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보도방향이 당초와 크게 바뀌고 있다.

한국일보의 3월 28일자 보도나 과학주간, 3월 31일자의 동아일보(전 서울대약대학장 홍문화박사), 4월 1일 저녁 9시 뉴스시간의 집중보도, KBS에서의 한인규박사 해설 등을 통해 일단 국내 유명 TV, 신문, 라디오 등이 아직 우리는 과잉을 걱정하기보다는 부족을 걱정해야 할 입장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남자는 하루 500mg, 여자는 350mg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여 심장협회의 권장량보다 60%나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칼로리의 40%정도를 지방으로 섭취하여 일본, 일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칸인들보다 약 3배나 더 섭취하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필요량의 대부분을 간에서 생산하며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은 20~30%이고, 콜레스테롤의 혈중농도가 1백ml당 150~200mg 정도이면 정상인데, 우리나라 중류생활자의 경우 160~165mg으로 콜레스테롤을 걱정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미국인의 하루 육식섭취량은 약 300g으로 우

리와는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데, 한때나마 매스컴에서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것은 아이러니에 불과하고, 콜레스테롤 신진대사 연구에 40년 가까이 종사한 록펠러대학의 아렌스박사의 말대로 모든 사람에게 붉은고기를 먹지말라는 것은 삶의 즐거움을 불필요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영양분 공급원으로서는 계란보다 멋진 것이 없다고 한 바대로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국민보건향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양계인들도 우리 여전에서의 콜레스테롤이 문제될수 없다는 충분한 연구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 배합사료 가격

국내산 보리사용으로(30만톤) 배합사료 가격은 6.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국내산 옥수수도 사용하고 있어 합하면 약 7%정도의 인상요인이 된다.

정부는 수입개방 예시제를 실시함에 따라 86년에는 닭고기도 자동승인품목으로 수입이 개방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때에도 국내산 곡류를 현 재수준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우선 국제경쟁력에서 사료가격에서만 7%의 부담을 안게 된다.

양계산업은 전적으로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비의 70%정도를 점하기 때문에 생산비는 약 5%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문제가 자못 심각하다. 정부당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리라고 믿는 수밖에 양축가 스스로 충격을 흡



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얼마전 한국사료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문을 농수산부에 제출하였고 축산생산자 3개 단체도(양계협회, 양돈협회, 낙농비육협회) 공동명의로 특별 배려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당국에서도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다행이 아닐 수 없다.

86년을 앞두고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양축가들은 원료다변화나 국내산곡류의 사용을 받아들이지만 이로 인하여 품질의 저하나 가격의 인상까지를 감수하여 국제경쟁력을 잃어 변화농사처럼 되는 것까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소득표준을 결정

83년도 사업분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었다.

이제는 웬만한 규모면 세무사의 지도를 받아 기장을 하기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나 양계업은 외형만 크고 소득이 낮아 세금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도 기장을하지 못하는 옆세약계인의 경



가. 축 산 업

일련 번호	종 목	구분	코드번호	적용구분	'83 기본율	준용종목 및 적용범위
11	낙농 및 우유 사육		CX 01001	1억원미만	8	○우유 및 우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 및 젖양을 기르는 낙농업 (낙농 사업체에서 우유를 살균하여 병에 넣 어 시판하는 경우 포함)과 최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비육우 사육장
			CX 01002	1억원이상	8.8	
12	양 돈		CX 02001	1억원미만	10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 사육 업
			CX 02002	1억원이상	11	
13	양 봉		CX 03001	1억원미만	18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업
			CX 03002	1억원이상	19.8	
14	기타가축및 가금사육	양 계	CX 09011	1억원미만	10	○젖소, 젖양, 비육우, 돼지를 제외하 고 고기, 모피, 털 등을 생산하기 위 한 가축사육업 ○고기와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오리, 거위, 칠면조 등을 사육하는 가금사 육업(양계제외) ○누에를 치는 양잠업 ○기타의 축산활동으로서 종축, 종금 사 육장, 애완용 동물사육장, 야생조수 류사육장(사냥용 제외) 실험용 사육 장 포함 ○축산법 제13조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 업자가 영위하는 가금부화업
			CX 09012	1억원이상	11	
		사 슝	CX 09021	1억원미만	14.5	
			CX 09022	1억원이상	15.9	
		기 타	CX 09091	1억원미만	12.5	
			CX 09092	1억원이상	13.7	

## 훈식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 쌀의 영양적 결함을 해결해 준다
- 보리훈식은 소화가 잘 된다
- 보리는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 훈식은 미용효과도 있다